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오늘, 교회설립 54주년 기념주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지 54년이 되었습니다. (행 20:28) 특히 지난 10년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가 더욱 견고해졌기에 교회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 보혈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5:12) 복음으로만 양육되었던 천국일꾼들은 이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선봉에 나섰습니다. (막 16:15) 무려 1만 명이 넘는 중언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열방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 다. 결국 이 사랑의 강물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자연스레 십자가를 전하는 향기가 되었습니 다. (갈 5:14)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라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다." (찬 245장) 모든 교회를 향한 악한 영들의 공격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온갖 계락을 동원하여서 주님의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1:22)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5대 목 표를 이루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 더욱 힘차게 전진해야 합니다. (빌 3:14) 온 땅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지상명령(마 28:19~20)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일에 믿음으로 하나되는 충현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이 땅이 밝아오네. 주 예수 온총을 찬송하네." (찬 248장)

*오늘 2·3부 예배는 가족연합예배
교회설립 기념 특별찬양 <천지창조>가 찬양예배 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16일), 제1교육위원회 새생명 초청 전도주일

한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학교의 발전이 무척이나 역동적입니다. 선교와 성경학 교를 통하여 방학 중에도 충만하게 넘친 영혼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다음주일에는 제 1교육위원회에 속한 모든 부서에서 일제히 새전구를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잃어 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가득한 새생명 전도주일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과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밀음의 삶

빌레몬

(빌레몬서 1:1~3)

13:34~35)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과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히 13:1)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관계는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벧전 1:22) 바울과 빌레몬의 우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된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1절) 이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것처럼 빌레몬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예 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배고픔도, 매 맞음도, 돌에 맞음도, 감옥행도 기쁘게 감당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빌레몬 역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과 물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관계도 단호하게 끊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롬 12:1~2) 동역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고 후 6:1), 자신들의 직무를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딤후 4:5) 바울은 빌레몬을 그런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이는 빌레몬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빌레몬의 가족에게도 인사를 건넵니다. "자네 압비아와 밋 우리와 함께 군사 된 아킴보와 네 집에게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2절) 압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고, 아킴보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할 때에도 바울은 아킴보에 관해 썼습니다. (골 4:17) 빌레몬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가족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아내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혼과 별거, 알콜 중독과 물질주의, 성공·출세 지상주의가 가족을 흩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이 살았던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 하였습니 다. 그런데도 빌레몬이 예수님을 진심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빌레몬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돈독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빌레몬의 집은, 오고 가는 신자들이 언제라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사용되었습니다. (행 12:12, 16:40) 하나님의 은혜는 빌레몬의 마음에만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가정에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아름다운 편지를 쓰게 된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또 다른 형제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로마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간전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10절)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기쁘게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어 떤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빌레몬의 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함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그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빌레몬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똑같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빌레몬의 마음과 가정을 충만케 하였습니다. 빌레몬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가운데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빌레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VICTORY OF FAITH

⁽²⁰⁾So the people shouted, and priests blew the trumpets; and when the people heard the sound of the trumpet, the people shouted with a great shout and the wall fell down flat, so that the people went up into the city, every man straight ahead, and they took the city. ⁽²¹⁾They utterly destroyed everything in the city, both man and woman, young and old, and ox and sheep and donkey, with the edge of the sword.(Joshua 6:20-21)

Conquering the city of Jericho was a great challenge for Joshua and his people. The Israelites were in a very weak position. After wandering and complaining in the desert for forty years, they had no training, no combat experience, and no formal education. They were sick and tired of desert travel. When they approached Jericho they saw that the city had very strong and tall walls surrounding it. God ordered them to go around the city quietly once a day for six days, and on the seventh day to walk around it seven times and then shout. If you were there, you would probably start by wondering why you had to be quiet as you walked. The first day you would probably listen, but on the second day you would quietly start complaining that your feet or legs were becoming sore and you'd start wondering again why God was making you do this silly thing. By the third day you would complain about being tired of all this and keep asking why, why, why. If you made it to the seventh day and realized that today you had to walk around the city seven times instead of just once, you probably would not do it because you would think it was just not fair. You would argue that God could take down the walls with just one word, so why should you walk around like a fool. Well, the Israelites were absolutely different than you and I. On the seventh day, after walking around the entire city seven times, the priests blew their horns and the Israelites shouted with a great shout because they had faith. Without faith, there is no way they could have done it. When God's people heard the sound of the rams' horns they shouted at the top of their lungs because they really believed, and the walls of Jericho tumbled down. They ran inside without fear, like a little child running into his play fort, utterly destroying everything. They had real faith.

My dear friend, when you really look at Joshua, Moses' replacement, you can see that this man was originally a slave with no real leadership experience, but God appointed him to step into the Jordan River and lead His people through a canal on dry ground. (Josh. 3:17) Joshua and the Israelites could not conquer Jericho without faith. No matter how much knowledge, reasonable thinking, and high intelligence strategies they could acquire, there is no way they could conquer Jericho without faith. Everything that happened in Jericho happened only by faith.

The opportunity of faith is now, not later. God already told Joshua that He would give Jericho to him, "See, I have given Jericho into your hand, with its king and the valiant warriors." (Josh. 6:2) It was Joshua's choice to believe it or not. My dear friend, you have the opportunity of faith, the only problem is that you think logically. You keep asking why, why, why. God has already promised to give it to you, but in front of you stands the huge walls of Jericho with its doors locked and occupants strongly armed. With human eyes there is no way you see the possibility of conquering without weapons and well trained soldiers. Forty years earlier, the Israelites stood in the exact same place, seeing themselves as grasshoppers in comparison to the size of their enemies. (Num. 13:32-33) But God said that He would give Jericho to you, so now it is your choice. The Israelites clearly saw that the city was strong and awful, but by faith there is no comparison. They had salvation and are strong witnesses. 1John 1:5-6 say, "This is the message we have heard from Him and

announce to you, that God is Light, and in Him there is no darkness at all. If we say that we have fellowship with Him and yet walk in the darkness, we lie and do not practice the truth." My dear friend, right now you definitely have the opportunity of faith, so it is up to you whether or not you run into Jericho or away from it.

The obedience of faith is now, not later. God told Joshua, "You shall march around the city, all the men of war circling the city once. You shall do so for six days. Also seven priests shall carry seven trumpets of rams' horns before the ark; then on the seventh day you shall march around the city seven times, and the priests shall blow the trumpets. It shall be that when they make a long blast with the ram's horn, and when you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all the people shall shout with a great shout; and the wall of the city will fall down flat, and the people will go up every man straight ahead." (Josh. 6:3-5) All you have to do is obey, not understand. It is hard to understand. Joshua gave God's exact orders to the Israelites. God clearly explained the plan, so that no one could say I did not know what to do or I forgot. With human understanding, it sounds like a terribly dumb and sure to fail plan, but this plan only succeeds through obedience and faith. God's blessings always come through faith, "For whatever is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our faith." (1 Jn. 5:4) Good works always accompany salvation, but your works cannot save you,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as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Eph. 2:8-9) James reminds believers that if they lack wisdom, they should ask for it from God and He will give it to them generously and without reproach, "But he must ask in faith without any doubting, for the one who doubts is like the surf of the sea, driven and tossed by the wind." (Jas. 1:6) The leper, Naaman, was told by the prophet Elisha to go and wash in the Jordan seven times if he wanted to be cured, "So he went down and dipped himself seven times in the Jordan,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man of God; and his flesh was restored like the flesh of a little child and he was clean." (2Kgs. 5:14) Obedience works. If you believe, it is going to happen. Jesus told Martha, "Did I not say to you that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Jn. 11:40) Well, Jesus told the man who had been dead for four days to come forth, and Lazarus came forth!

The victory of faith is now and later. Today's Bible verses say, "So the people shouted, and priests blew the trumpets; when the people heard the sound of the trumpet, the people shouted with a great shout and the wall fell down flat, so that the people went up into the city, every man straight ahead, and they took the city. They utterly destroyed everything in the city, both man and woman, young and old, and ox and sheep and donkey, with the edge of the sword." (vv. 20-21) Victory comes in God's time and in His way. Do you believe God's word or your own knowledge or imagination? Do you really believe in the power of Jesus Christ? Jesus overcame death on the cross by faith to victory. He asks each believer to deny themselves, take their crosses, and follow Him. This is His order. This is your opportunity. Do you obey? If so, then you will have victory now and forever. Amen. ■

【다음 주일 설교】

믿음의 승리

(20)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21)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 6:20~21)



김성관 목사

믿음으로 정복한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약한 상태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한 그들에게는 훈련이나 전투 경험도 없었고 정식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느라 지치고 피곤하였습니다. 이런 그들 앞에 견고하고 높은 성벽에 둘러싸인 여리고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몇세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조용히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번 돌고 나서 외치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성 주위를 돌 때 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는지 궁금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마 첫째 날은 시키는 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날부터는 발바닥과 다리가 아프다고 불평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시는지 모르겠다며 또 다시 반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날이 되면 여러분은 이 모든 일에 이제 지쳤다고 불평하면서 계속해서 '왜?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어찌어찌해서 겨우 일곱째 날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 날은 성 주위를 한 번이 아니라 일곱 번 돌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 아마도 여러분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왜 자신들이 바보처럼 성 주위를 맴돌아야 하느냐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나 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곱째 날, 성 주위를 일곱 번 돌기를 마친 후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각나팔 소리를 듣고 진전한 믿음으로 목청껏 외쳤고 마침내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린 아이가 놀이터로 달려가듯이 아무 두려움 없이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를 한 번 보십시오. 본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그는 지도자의 경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에 들어가 마른 땅을 밟고 건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 3:17) 믿음이 없었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 탁월한 전략이 있었다고 해도 믿음이 없었다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기뻐하라

믿음의 기쁨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그의 손에 붙여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수 6:2) 그것을 믿고 안 기쁨은 여호수아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는 믿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왜? 왜?"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의 눈앞에 굳게 잠긴 여리고 성벽과 완전무장한 그곳 거민들이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무기도, 훈련된 병사들도 없는 이스라엘이 그곳을 정복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사실ैन은 전 독재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대적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매뚜기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민 13:32~33)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의 견고함과 사람들의 장대함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은 구원을 약속하고 확고한 증거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5~6은 말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

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지 아니함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께 믿음의 기쁨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리고를 향해 달려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피해 달아날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순종하라

믿음의 순종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몇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칠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수 6:3~5)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획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거나 잊어버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이해 수준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바보 같고 실패할 게 뻔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주님의 선한 역사는 언제나 구원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한 일이 여러분께 밀려주는 못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야고보 사도는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약 1:6)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만일 낫고자 한다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나아만이야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연하리라 어떤이냐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왕하 5:14)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만일 여러분도 순종한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 11:40)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

믿음의 승리는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계속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20~21절) 승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자 각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여러분께 주어진 은총의 기회입니다. 순종하지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

말씀의 승리

참 빛

(요한복음 1:1~9)

참 빛은 생명의 움직임이다

참 빛은 우리를 참된 생명과 평화의 자리로 이끈다.(눅 1:79) 21세기를 살아 가는 우리들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려움에 직할 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건강, 행복, 평안한 살만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1:1)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내려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세상적인 삶의 형통과 아름다운 살만을 원하고 있다. 요셉이 누렸던 축복만을 원하고 있다.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모른 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만 한다. 안 된다. 우리는 참 빛을 만나야 한다. 인류의 죄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음성, 보혈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세상과 관계된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의 죄'를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요 3:19)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

영원한 빛은 곧 하나님이다.(사 60:19~20) 해, 달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라질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 "여호와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라"(시 27:1)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모든 자존심을 버

리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찬 495장) 믿음의 자녀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돈, 권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다.(시 36:9)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의 근원이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요일 1:5)

말씀이 우리의 빛이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우리의 행실을 깨끗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뿐이다.(시 119:9)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말씀에 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자.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시 119:130) 말씀이 나의 삶에 참 빛이 된다. "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시 19:8)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말씀은 은총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또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살 가운데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눅 9:23) 영원을 향한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로 가려면 참 빛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길만을 가르치고 있다. 속지 말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빛을 발견하자.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나는 죄인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찬 146장)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요 9:5)

교회는 우리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빛이 교회에 비쳐졌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마 5:16) 이제 가는 곳마다 영원의 빛을 비추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롬 13:12)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구, 빛의 자녀가 되었다.(엡 5:8 ; 살전 5:5) 빛의 자녀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증거해야 한다.

세상의 전통, 윤리가 아니다. 우리는 좁은 길, 빛의 길을 걸어야 한다. 영의 눈을 열자. 그리고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자. 이 세상의 근심된 일로 딜레마에 빠지지 말자. 내 죄가 나의 딜레마가 되어야 한다. 십자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빛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꽃대로 나아가는 17교구

우리 17교구는 교회에서 다소 먼 거리에 있는 경기도 일산과 파주, 금촌 그리고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속한 303세대 700명의 교구 식구들이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 3:14)는 말씀처럼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락의 정욕, 이성의 자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의 겸손함과 운우함을 본받아 주 안에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서로 섬김과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8명의 지역장과 남성 구역장, 32개 구역의 부지역장과 구역장, 7명의 남녀전도회장들의 헌신과 수고로 교구와 전도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구역에서는 구원의 감격으로 매주 구역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월 첫 주 금요일에는 교회에서 연합으로 구역예배를 드립니다. 교구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비롯하여 젊은이들과 어린이까지 모두가 주 안에서 더 가까워지고 하나되는 아름다운 친교시간을 갖고 다 같이 금요찬양집회로 합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천국을 맛보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구, 은혜와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구가 되어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미 총 5개 팀이 선교지역을 마쳤고, 현재에도 선교지역을 감당코자 말씀과 헌치 언어를 배우며 기도로 준비하는 팀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단독세대로 있는 초·중·고·대·청년 교구식구들을 위하여 심방을 하는 것은 물론 교구 청지기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돌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 7:3)라는 말씀을 거울삼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교구 일꾼들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교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구임을 확인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우리 교회의 2007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구 청지기들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화려져 교회들이 세속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세상을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포대인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17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철주(장로, 17교구장)

사랑의 보따리

생애 첫 번째 선교였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선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출발하였다. 하지만 선교지에서의 빠듯한 일정으로 힘들어 지치면서 처음의 마음과 같지 않게 가슴속에 불안과 회개가 들었다. 이같은 강박한 마음이 셋째 날 저녁 사역 평가회 시간에 깨어졌다. 주님께서 나를 깨뜨리신 것이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회개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의 기도가 쏟아져 나왔다. 집안에 들어갈 때 더럽고 특이한 냄새에 코를 막기 일수였고, 때론 손을 덥석 잡아주지 못한 내가 정말 부끄러웠다.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큰 축복을 주셨건만 그 축복을 조금도 나눠 주질 아까워하고, 주지했던 모습을 회개했다.

이처럼 진심어린 회개의 눈물을 흘린 다음 날, 나는 비로소 십자가의 증인으로 거듭났다. 난 그들의 손을 덥석 잡을 수 있었고 밤새 나는 그 몸을 힘껏 안아 주었다. 코 훌리고 때론 현직인의 얼굴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였다. 주님은 교만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어 완악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치유할 수 없었던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다. 복음의 능력은 먼저 나를 변화시켰고, 거듭난 나는 복음의 씨를 믿음으로 뿌릴 수 있었다. 출발할 때 들고 간 작은 사랑의 보따리,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보니 어느덧 큰 보따리가 되어 내 손에 들려 있었다.

박정민(집사, 15교구)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에게는 이번 단기선교가 있지 못할 첫 선교가 되었습니다. 처음 선교를 가겠다는 것을 보고 언젠가는 나도 꼭 가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 부족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오던 내가 선교를 간다고 신창하고 탐강님께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팀 훈련을 받고 선교를 준비하면서 힘들었고, 전도가 어려웠고, 중이열이 자주 재발되어 격정도 많이 되었고 포기하러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 선교지에는 사원들과 승려들도 많고 여러모로 선교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순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찬양도 기쁘게 불러서 기뻐했습니다. 사역은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에 겁이 많았는데 팀원들이 기도해 주셔서 조금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사역 기간 동안 처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작은 일을 한 것 같아 기뻐하고, 저의 믿음도 조금은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강간함을 주셨고, 내 뜻대로 욕심대로 어떠한 일을 하면 안 되며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셨는데도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았었는데 선교사역 기간 동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옆에 계셔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도록 하시고, 잘 하면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소혜(대학부)

기쁨의 선교

23교구 팀

✦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주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이니까, 우리는 그것만 다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만 단어가 나오면 생소한 단어를 대한 듯 임지를 못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기쁨에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감사드렸다. (송영복 권사)

✦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만이라도 남기고 가야겠다고 우리들은 한마음으로 의지하며 다녔다. 이가 다 빠진 할머니지도, 귀엽게 쳐다보던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곳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서정애 집사)

✦ 밭에서 일하다 집에 들어가시던 한 어머니를 만나 복음을 전하니 자기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 만작된 머느리를 불러내어 함께 복음을 듣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태어날 이기까지 구원해 주세요." (김숙자 권사)

✦ 처음에 그들과 1:1로 만나 복음을 전할 땐 두서가 없었으나 두세 번 더할수록 말도 잘 되고 기쁨이 넘쳐났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며, 짧은 기간이나마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내 신앙의 끈도 튼튼해짐을 느꼈다. (김순자 집사)

✦ 선교가 처음인 나에게는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사역을 마치기까지 모두가 새로운 은혜로운 경험이었다. 우리의 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함께 전도자를 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을 볼 때 매우 기쁘고 감사했다. 비록 저들이 담장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음을 믿으며 그것이 육체에 떨어지지 씨가 되기를 기도했다. (김정자 권사)

✦ 산골 마을로만 다니면서 몇 집씩만 전도하고 떠나오곤 하였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도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산속의 위험하고 굶은 길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이며 선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박재경 집사)

✦ 그곳은 예수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곳이었다. 전도하면 고개를 지으며 나가거나 자신의 신을 부르며 거절하였다. 그러나 개중에는 종교통 학생이나 일반인 중에 고개를 끄덕이며 믿겠다고 하며 전도자를 다 없는 사람도 있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몹시 당황할 때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로 선교를 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했다. 그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다. (김연수 권사)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회복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지에 단기선교사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타교인으로서 낯선 사람들과 가는 단기선교가 부담스러워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명에 와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팀원들과 불협화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선교편환을 받기 전에는 선교에 대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저 교회에서 많은 몇 개의 봉사만으로도 주님의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훈련과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을 생생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담대한 믿음도 갖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 와서 보니 이곳저곳에 세워진 사원과 집마다 세워져 있는 우상들의 모습을 보며 믿는 자로서 책임이 느껴지며 더 많은 기도와 헌신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어눌한 말투로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들어주며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땅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본교도 크리스천이라고 하시면서 집안으로 들어오라며 성경책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찬송가를 부르시던 할아버지를 보며 언어와 피부색은 다르지만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해맑은 눈웃음을 보며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복음을 전할 때 밝게 웃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고자 하는 할 때에도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우리를 반기며 찬양을 따라하는 모습에서 이 아이들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그 땅을 떠나왔지만 이것으로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선교지의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다 주님의 사역지임을 깨닫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려 합니다. 끝으로 훈련과정에서부터 선교를 마치는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정영정(집사, 주사랑교회)

*영적으로 준비된 모든 성도(타교회)라면 누구든지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은/선교위원회, 내선 357)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3일(월) - 9월 11일(화)	16교구	박성명

보혈로 거듭난 성도, 보혈에 기초한 교회!

“주 예수 강림하시니 물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보혈로 거듭난 성도와 보혈에 기초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들이 고백하는 믿음을 보십시오.



▶ 친구와 같이 교회에 다니게 되어 기뻐요. (안주원, 유년부)

▶ 앞으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과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재현, 중등1부)

▶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게로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총현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 더 많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되어 주님게로 온전히 나아올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은혜, 고등부)

▶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역삼동 일대 교회주변 전 도반만 아니라, 온 지역과 온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총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백민지, 대학부)

▶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맡겨진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복음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윤보라, 청년1부)

▶ 십자가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현교회는 탁아부와 어린이집이 있어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지내다 보니 혼자 찬양을 중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풍나불에 불을 잘 지운 물이 다 빠져나가도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처럼 믿을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봉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박선정, 집사)

▶ 우리 교회 54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쁩니다. 사랑부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매우 기쁩니다. 사랑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박순남, 성도, 사랑부)

▶ 총현교회 안에 에바다부가 설립되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에바다부에서 300명 성도 목표를 향해 항상 기도하고 있고, 이 비전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해외에 선교를 가서도 농아인들에게 복음전파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영진, 에바다부)

▶ 온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총현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재호, 안수집사)

▶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선교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전도나 선교가 위축되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갖고 더 역동적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저 자신도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박용을, 안수집사)

▶ 십자가 복음의 말씀과 단기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총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승국, 은회 안수집사, 소망부)

▶ 교회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교회, 또한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위원회 봉사를 통하여 성도들이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선교를 떠나시는 성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정일환, 선교위원회 봉사자)

▶ 위임독서부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허명호, 안수집사, 차광안내부)

▶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자원봉사를 통해 아름답게 가꾸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로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그 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광근, 안수집사, 자원봉사부)

▶ 아직 교회에 나온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낯설고 어색하지만, 예배드려 줄 때만큼은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교회에서의 시간이 포근하고 즐겁습니다.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혜민, 성도, 새가족 양육부)

▶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의 방주로 삼아 초·중 도서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세상 것을 좇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양식을 보고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희자, 권사, 초·중 도서실)

▶ 교회에 오는 것이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머니께서 찬양으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었는데, 초·중 도서실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기쁩니다. 교회는 저에게 힘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감사한 곳입니다. (김길성, 소년부)

▶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5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이 교회를 복음으로 견고하게 지켜주시길 믿습니다. (김승환, 집사, 교구간사 서기)

[2007년 하반기 충현장학생]

십자가를 전하는 천국일꾼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성경학교에 열심히 나가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랐던 저는,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이 자연스런 의무감으로 다가와 형식과 외식의 모습을 품은 채 지냈습니다. 물론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였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몹시 힘들었고 자꾸만 공지로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언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막아주셨고, 계속해서 제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저를 당신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군 제대 후, 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으로 간 뒤 저의 신앙생활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곳의 한인교회는 환경이 열악하였고, 고단한 이민생활과 유학생생활을 위호해주는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저를 깨우는 말씀과 저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뜨겁게 리드해주는 청년들 또한 별로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큰 슬럼프에 빠져있던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금요인양집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은혜를 받았고, 주님께서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다시 한 번 감사하였습니다. 저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귀한 시냇기였습니다. 길 한탄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되며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심히 부족하고 미숙한 저를 또 2007년 하반기 충현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바로 선 충현교회의 천국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장학생은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여겼는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저는 주님의 의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것을 마음 속 깊이 다짐합니다. 나 같은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이 결코 값싼 것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장기현(대학부)

* 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기쁨의 선물 *

‘장학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받는 것,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사회복지의 한 방편으로 나눠주는 것?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장학금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하는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장학금에는 공부만 잘 할라는 뜻이 담겨 있고, 돈 앞에 좌절하거나 무릎을 꿇지 말라는 뜻도 있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내게 장학금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 것이다. 낙담하지 않은 가정형편 때문에 형과 내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에는 늘 부족함을 느꼈다. 친구들처럼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갖지 못할 때가 더 많다. 그럼에도 낙담하지 않고 열매를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주 나의 아버지가 나를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일마 살지 않았지만 살면서 종종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시지만, 주님 안에서 나의 소망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이다. 나의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고통을 겪으실 때, 그 고통이 아무리 크고 나의 죄가 아무리 커더라도 나에게 대한 사랑이 더 크시기에 나에게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랑을 교인들에게 분배해 나에게 주셨다. 아무리 봐도 제대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세상은 나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않고 그저 노력하라고만 말하고 나에게서 무엇인가 가져가려는 것만 같는데, 적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그렇지 않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꺼이 나에게 나눠준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매우 감사하다. 이런 나를 끝까지 돌보시는 주님이 정말 고맙다. 어제도 부족하였고, 지금도 부족하며, 내일도 연약할 나를 끝까지 지키실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 고맙다. ‘아,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시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은혜받은 내가 나중에 은혜 베푸는 자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한 번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감사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수원(고등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

빌라델비아교회 (요한계시록 3:7-13)

빌라델비아교회의 특징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뜻은 이 교회가 ‘가난한 교회’ 또는 ‘지식이 부족한 교회’ 또는 ‘소수의 사람이 모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중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중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교회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유훬와 꾀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로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기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23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24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는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또 지키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힘껏 모든 주님을 섬겼습니다.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그렇게 가난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난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배반치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교회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합니다. 베드로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빌라델비아교회처럼 우리들도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김익민(목사, 3교구)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06	서영희	17	청년2부	박복순(17)	1416	이연선	1	청년1부	박종철(2)
1407	정희아	17	청년1부	최승민(17)	1417	이민희	25	외선부	박윤서(9)
1408	이현정	20	청년1부	최윤옥(23)	1418	영숙	25	외선부	박윤서(9)
1409	황정연	23	청년2부	이진규(6)	1419	이기	25	외선부	김순남(10)
1410	정나연	23	청년2부	이진규(6)	1420	바자르	25	외선부	김순남(10)
1411	최희준	5	청년1부	민영숙(3)	1421	김태환	18	청년1부	김정희(1)
1412	이현진	7	고등부	안성희(6)	1422	이희정	2	청년1부	최영택(24)
1413	윤호철	15	고등부	정연희(18)	1423	김혜민	19	중등1부	최소연(19)
1414	박익진	1	청년1부		1424	김주상	8	사망부	
1415	김정연	9	청년3부	김영민(20)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